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7. 9. 21, 인터넷판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탈원전에 부품수급 차질 우려” 체코, 한국에 원전
발주 난색, [한국원전 좌초위기] 원전 수출후 50년 AS
해야 하는데...2년내 부품생태계 붕괴 우려(서경 인터넷판)

1. 기사내용

- 체코 정부가 한국이 신고리 5·6호기를 짓지 않으면 향후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우리측에 전달함
- 정부 고위관계자가 “체코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한국 수력원자력(전달) 것으로 안다”고 밝힘
- 정부 고위관계자는 “청와대 차원에서 원전 수출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”이라고 지적함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산업부는 체코측으로부터 원전부품 수급 차질과 관련한 어떠한 우려도 전달받은 바 없음
 - 한수원에게 확인한 결과, 한수원도 체코측으로부터 우려를 전달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됨
- 그간 계속 밝혀 왔듯이,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방침임

- 한편, 한-체코 양국은 9.20일 개최된 한-체코 경제공동위에서 “양측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”하였음
 - 아울러, 체코 원전특사가 10월중 방한하여 정부 고위급인사 양자면담, 국내 원전산업 시찰 등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
-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박현중 과장(직대) (044-203-5330)

